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개념 및 그 적용 방안 연구

심 수 명 교수
(Ph.D., 국제신학대학교)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격의 실현에 최대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함께 인격 중심의 전통적 교육이 실용적 지식과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사회조직과 교육의 변혁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붕괴시면서 물질적 풍요를 쫓는 성공위주의 삶으로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 현상을 야기하였고, 그리하여 현대사회는 성공 지향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교육한다.

하지만 성공보다는 인격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온전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인격이 이기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결국에는 각종 비리와 부정, 타락에 연루되어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인격적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이들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논의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인격 연구는 주로 도덕교육의 한 측면으로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신학 및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3가지 인격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가면적 인격,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격 개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어떠한지 제시하였다.

또한 인격 교육이 삶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덕목이기에 훈련으로서의 인격을 역설하고 그것에 따라 교육의 주체자도 교사나 교실 환경보다는 부모가 주체가 되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삶을 연습하고 모델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 여는 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교육은 인격의 실현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지식과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조직의 구조적 변혁이 초래되면서, 인격 중심의 전통적 교육이 실용적 지식과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사회 조직 및 교육의 변혁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붕괴시키면서 물질적 풍요를 좇는 성공위주의 삶으로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 현상을 야기시켰다.

현대사회는 성공 지향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교육한다. 그러면 성공을 보는 시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격적인 인간관계나 내면의 진실성을 추구하기 보다 과정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목표에 이르면 된다는 식의 삶의 기술이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다.¹⁾ 확실히 현대 사회는 성공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실용적인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함으로 의사소통 기술, 설득력 향상 기술, 적극적인 사고 교육, 대중적 이미지 등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삶의 기술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온전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인격이 문제가 있을 때, 각종 비리와 부정이나 타락에 연루되어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인격적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이들 병리 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논의가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품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나 사회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인격교육의 문제는 끊임없이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인격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주된 논지로 하여 신학 및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격 개념을 살펴보고 그 적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관점에서의 인격 개념으로서 연구자는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가면적 인격으로 이는 개인의 역할에 따른 바람직한 인격적인 삶(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내면적 인격으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관계적 인격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자기중심성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인격 교육의 적용 방안으로는 교사나 교실 환경 보다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가정이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 위주의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인격 연구는 주로 도덕교육의 한 측면으로서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의 연구가 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바람직한 인격 훈련의 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되며, 추후에 이번의 연구를 반박하고 보완함으로써 더 좋은 인격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II. 펴는 글

1. 인격의 일반적 개념

인격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격적인 인간을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룬 존재로, 플라톤은 지혜·용기·절제·정의를 가진 존재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적·동물적·이성적 존재로서의 통합된 인간으로 표현하였다.²⁾ 테일러(D Taylor)는 서구 문화에서의 인격 개념의 원천을 크게 그리스적(고전적)인격과 성서적 인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³⁾ 이 때의 인격은 살아있는 가치로서 지혜와 선함 등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므로 덕스러운 사람은 덕을 일상생활에서 연습함으로써 이루어간다고 생각했다. 또한 리코나는 인격을 인지, 정의, 행동의 세 측면들이 일관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종합된 모습으로 보았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구의 교육사에서는 지 덕 체의 균형으로 인격적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 정 의의 조화로 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인격을 성격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천성적 특징과

우연적으로 형성된 특징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용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성격과 인격은 그 의미가 다르다. 성격⁶⁾을 타고난 특징으로 생각한다면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인격은 개체의 노력 혹은 수양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인 평가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인격의 의미는 '사람됨', '사람다운 품성'을 의미하며,⁷⁾ 이 말은 사람을 볼 때 도덕적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의 인격을 도덕적으로 평가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도덕적 가치와 도덕과 무관한 가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정직, 공정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은 책임을 수반한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청구서에 대해 지불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해야 한다. 이러한 면들은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일러준다. 이것이 도덕적인 가치인 것이다.

도덕과 무관한 가치는 그런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말해 준다. 연구자도 개인적으로 고전음악이나 영화 감상, 혹은 독서를 취미생활로서 가치있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들은 보편적인 가치들과 비보편적인 가치로 나눌 수 있다.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들—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자유, 평등을 존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건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들에 부합되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것들은—자신의 종교에 대한 고유한 의무들인 예배, 기도, 말씀훈련, 금식, 헌금— 한 개인으로서 사적으로 느끼는 의무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⁸⁾

2. 신학적 인격 교육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성을 중심으로 이성적인 면과 도덕적 능력, 만물을 지배하는 힘⁹⁾ 등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반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¹⁰⁾ 이렇게 인간의 피조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도록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인 마음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후손은 타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려진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골 3:10)은 상실했지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¹¹⁾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난 이후 성령의 은혜로 성화하는 과정에서 인간됨의 모든 측면이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롭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새롭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는 새로운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의 근원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영적 은혜로 인해 배움을 입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 하시는가?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각기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 됨으로 함께 동역하신다. 둘째, 인격적으로 관계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각기 스스로 자존하시며 완전한 존재이시지만 온전하고 하나되시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인격적인 동등함과 평등함으로 관계를 가지신다. 셋째, 자신을 순결하게 내어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자는 성부를 위해 성령은 성자를 위해 기쁘게 자신을 헌신하시며 하나 됨을 이루어 가신다. 넷째, 깊은 사랑의 친밀함으로 교제하신다. 친밀함은 서로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용납과 자유, 인격적 존중에 근거하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자유와 힘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이다.¹²⁾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초월적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인간에게 인격이란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나뉘지 않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참 인간됨도 공동체성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수용하며 서로 자신의 존재됨을 나누는 자발적인 사랑이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 안에 참여하여 서로를 나누는 함께 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습을 닮으려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향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낮아지며 섬기는 인격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인이 인격적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하심과 하나되심을 추구

하는 관계성을 본받아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인격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인격이란 고난당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성은 인간의 인격성에 대한 존재의 근거가 된다.

2) 기독교적 인격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써만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독교 인격교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본질상 부패한 악의 구조, 즉 '타락한 구조'가 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성향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투사시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행복과 형통을 원하시는가에 대해 의심하는 그 뿌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어도 선하심은 신뢰하지 못한다.¹³⁾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불신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 틀에 스스로 얽매어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 그러나 죄는 즉각적으로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타락한 아담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뭇대로의 방어층을 형성한다.¹⁴⁾

따라서 기독교 인격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대적 낮아짐과 가난한 심령(마 5:3)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즉 끊임없이 자신의 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인격 교육의 과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성화하는 과정에서 인간됨의 모든 측면이 점진적으로 새로워짐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시작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롭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듯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전인적인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인격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점차 성화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인격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기독교 상담적 측면에서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일을 해낼 용기가 있어야 한다.¹⁵⁾

첫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모습을 스스로가 깨닫고 중심에서 회개하는 고통을 느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직시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실망과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거절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셋째,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를 느끼며 무언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고 싶어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한다. 이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다음의 표는 인간의 타락한 구조와 거룩한 구조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¹⁶⁾

표 1. 기독교적 인간관

	단계	타락한 구조	거룩한 구조
삶의 결과	5	안전감의 파괴	열매맺는 생활
나의 욕망	4	“성공할거야”(교만)	“순종할거야”(겸손)
자아상	3	“내가 싫어”(자기 혐오)	건강함(타인 사랑 능력)
대인 관계	2	자기 중심	타인 중심
사람에 대한 의존	1	지나치게 의존(집착)	사랑함으로 자유함
하나님의 선하심	토대	의심함(두려움, 분노)	신뢰함(평강, 예배)

타락한 인간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독교 인격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한다. 둘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한다. 셋째, 자기 중심적인 대인관계를 하던 것에서 타인 중심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넷째, 자신에 대하여 혐오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신을 사랑하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짐으로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도록 한다. 다섯째, 욕망에 있어 끊임없이 성공하고 싶은 교만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인격이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안전감이 파괴된 삶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열매맺는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되 그 목표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둔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인간 내면에 초점을 두고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인격 교육의 목표이자 내용이다.

3. 심리학적 인격 교육

1)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는 목표지향적인 인간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와 성장에 지대한 관심과 중점을 두어, 인간이란

목적과 목표를 세워 그것을 달성하려고 진력하는 전인(全人)으로 파악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창조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자유롭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간을 본다.¹⁷⁾ 또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면 인간은 반드시 선하게 자란다는 것을 기본신조로 하고 있다. 다만 인간은 병리적인 조건 속에서만 공격적이 되고 잔인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¹⁸⁾

그들은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자아개념으로 본다. Glasser에 의하면 심리적인 욕구에는 두 가지가 있는 바, 그 하나는 사랑에 대한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 사랑에 대한 욕구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이며, 가치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을, 타인으로부터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¹⁹⁾ 즉, 그에 의하면 인간과의 따뜻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향상시켜서 자아동일성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은 행동의 두 번째 요인인 자아를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상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적 자아이다. 인간은 하나의 자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각된 자아를 유지함과 동시에 그것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양극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아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목표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2)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격 교육의 목표

인본주의 인격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계발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인간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따뜻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²⁰⁾ 자아실현이란 행동이 발달하려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위협이 극소화 되어야 하므로, 인간관계에서 위협을 극소화시

키는 조건으로서 학습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존경, 그리고 진실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²¹⁾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자아의 향상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첫째, 자아향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둘째, 학습자를 신뢰하여 자유를 허용해주며 셋째, 학습자가 실수를 통하여 성장과 변화가 일어남으로 보다 자율적, 독립적으로 노력하도록 접근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를 신뢰하기에 자율성을 주어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개념의 변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새로운 경험이 지니는 의미를 학습자가 발견하는 것이다. 학습자와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라든가 자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 등은 사실상 학습자가 새로운 경험을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느끼게 하여, 자아개념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인본주의의 인격교육방법은 따뜻한 인간관계(유대감)를 형성하여, 새로운 사태에 직면할 때 이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느끼게 하여 새로운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면, 지각이 항상적으로 변화되고 자아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4.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인격의 분류

1) 가면적 인격²²⁾

인격(personality)의 어원(語源)은 연극의 가면(역할 등장인물 등)을 뜻하는 라틴어의 페르조나(persona)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인격의 일차적 개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인격을 기능으로 보는 개념이다. 그의 기능은 다른 사람의 기능을 통해 바뀌어질 수도 있다. 즉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무대에 등장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면적 인격은 다른 말로 외면적인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보여지는 부분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면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차적 인격은 가면 뒤에 감추어진 실질적인 모습 보

다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면적 인격에서 바람직한 인격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화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사회화되어 가는 첫 과정에서 배변훈련(toilet training)을 시킨다. 그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를 위해 타인이 싫어할 만한 부분들을 적절히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면적 인격이 잘 다듬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여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싫어할 만한 것을 적절히 잘 숨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관계 예절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대표적으로 외모, 첫인상)을 보고 그의 인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가면적 인격의 교육 목표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청지기 정신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가면적 인격이 적절하게 세워지게 되면 삶에서 예의바른 태도와 신사도를 갖게 되며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갖게 되지만 이것이 부족하면 인격 장애의 병리성을 보이거나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융합된 삶을 살게 되며 가면적 인격이 너무 지나치면 위선의 삶을 살거나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²³⁾

표 2. 가면적 인격의 양상

	부족	건강	지나침
일차	인격장애, 미분화	주체적인 인간	위선, 지나친 자기주장이나 간섭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면적 인격의 또 다른 한 면으로서 이것을

경계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영적 경계 유지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경계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다. 따라서 경계를 지킬 능력이 부족하면 혼란, 소외감, 거절감, 그리고 좌절뿐 아니라 정체성 상실, 자기포기, 무절제한 삶, 분노, 무책임 등의 수많은 문제점들로 시달리게 된다. 자신만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리적인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어 각종 인격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그 반대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범하면서 이것이 잘못인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비밀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녀가 성장하여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첫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모든 것을 알려하고 간섭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의 경우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낮은 자존감과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자라게 된다.

2) 내면적 인격

인격의 일차개념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인격의 이차개념은 자신의 내면에 은밀히 감추어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내면적 인격은 마음이나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내면적 인격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악이나 부패성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서 이를 적절하게 노출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면적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내면적 인격이 부족하면 내밀성이 없이 가벼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자신의 내면적 인격을 너무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과신하게 되면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표3. 내면적 인격의 양상

	부족	건강	지나침
이차	내밀성 없음, 가벼움	죄인됨을 인식함, 성찰지향	교만, 조종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향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모든 비판과 정죄, 거절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영웅적인 용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인격을 세워 나가는 내면적 투쟁인 것이다. 이 세상의 부도덕은 죄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나오곤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부족할 때 부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은 갖가지 유혹에 흔들려 그것을 뿌리치지 못한다. 그래서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정직함은 뇌물과 맞서며, 진실함은 거짓을, 정의는 부정한 억압을, 깨끗한 마음은 부도덕과 부정에 대해 사랑으로 맞서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위대한 개혁가와 순교자들은 저항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짓과 부도덕의 적이었다. 뿐만아니라 성직자들은 자만심, 이기심, 미신, 반종교에 맞서 싸우는 조직적인 저항 세력들이었다.²⁵⁾

사도바울 역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면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한계와 악에 대해 깊은 허무와 절망을 토로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그는 자신의 절대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인격이

다. 이때의 인격적인 모습은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다.

이것이 인격의 이차적인 면이다. 이것은 자기를 그럴듯하게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욕망을 다스리면서 안일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내면적 인격에서 필요한 덕목으로는 절제, 언행일치, 겸손, 용기, 근면, 소박, 진실, 사랑받기와 용서누림 등이다.²⁶⁾ 이러한 미덕들을 신중히 행사한다면, 깨끗한 마음과 정신이 습관처럼 굳어질 것이고 너그럽고 선량하며 절제하는 인격이 강화될 것이다.²⁷⁾ 이런 능력이 자신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비전의 삶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다.

3) 관계적 인격

관계적 인격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그 역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삶과 사랑을 나누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관계적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관계성의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부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강한본성이 있다. 이점이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인간 본성의 한 특성이며,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하면서도 노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인격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것이다.²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물의 세계로 피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세상과 비인격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서도 인격적이지 못한 자신이나 타인, 또 사회 때문에 갈등과 상처를 받으므로, 다시 비인격적인 세계 속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

신의 감정과 마음을 노출시켜 나를 열어주는 것이다. 즉 타인과 대화할 때 영적인 교제 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나 자신의 삶과 문제들을 개방하여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여는 진실한 용기와 주도적인 개방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진실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는 신념과 철학에 대해 Tournier는 ‘인격의 학’이라고 명명하였다.²⁹⁾

표 4. 관계적 인격의 양상

	부족	건강	지나침
삼차	고립(외로움), 자기-중심적	사랑의 풍성	눈치(정 중심)

관계적 인격은 공동체적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 인격은 사랑 안에 존재하고 코이노니아(친교, 교제)를 창조한다.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은 진정한 사랑으로 자아의 확장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 참여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다. 즉 우리의 관심의 범위에 따라 인격 성숙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직장을 넘어서서 이 사회의 구원, 한국교회의 문제, 남·북 분단, 세계의 구원 문제까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관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낄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람이 될 것이며 관계에만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진정한 자기는 잃어버린 채 타인의 눈치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둘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은 자기 수용이 되지 않을 때 깊은 죄책감과 자책 속에 빠져 자기 확대나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자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대고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주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깊이 잠겨야 하는 것이다. 그때 자신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Tourmier는 ‘인격 의학’의 기본을 형성하는 두 가지 특징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적인 실력과 다른 이에 대한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심이라고 보았다.³⁰⁾ 기술적인 실력은 지성의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인격적인 관심은 지성보다는 삶 속에서 정직과 순수함, 사랑으로 선한 마음을 키워가는 인간적인 자질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심과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려면 창조주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 사랑과 은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교통이 풍성하게 이루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늘 감격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를 의지하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겸허히 사랑하며 자신의 결점과 약점까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³¹⁾

따라서 관계적 인격에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태도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께 삶을 의뢰하고 주께서 불완전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³²⁾

일차 인격인 가면적 인격, 이차 인격인 내면의 인격 그리고 삼차 인격인 관계적 인격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인격의 비교

	가면적 일차 인격	내면적 이차 인격	관계적 삼차 인격
일반적인 모습	보여지는 부분, 성격(내향, 외향), 역할, 외모(사람들이 주목함), 예의와 신사도(내 기분)	은밀히 감춰진 모습, 마음, 중심(하나님이 주목하심)	타인과 관계 맺는 모습, 친밀함, 자신의 고독과 소외를 스스로 다스림
성공시	과 내적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태도, 탁월한 일처리 능력	자기노출과 고백(위선과 조종을 버림)으로 죄책감에서 자유로움	진실한 사랑, 정직한 나눔, 자기개방
실패시	인격장애, 위선으로 포장	잘못된 죄책감, 합리화, 남 탓이나 자기 탓	눈치, 조종, 관계 중독
교육 목표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경계유지 능력 키우기, 자신의 역할을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키우기	자신의 죄, 허물, 실수, 악에 대해 진실하게 인정함(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대함), 자신의 악을 부인하는 고통 수용	진정한 친밀감, 사랑의 능력, 열매맺는 생산성
교육적 초점	지식, 건강(오래 삶), 부와 권력의 추구(모든 공교육과 사교육의 초점은 세상에서의 성공)	가치(무엇을 남겼는가?), 예수님의 제자됨 추구(모든 신앙교육 및 훈련의 초점), 자기성장	남에게 기여, 영향력, 성숙한 리더십
자질	경청, 대화능력, 공감, 직면 등 상담적 기술, 성격 개발, 적극적 사고방식, 대중적 이미지, 유우머 등	절제, 언행일치, 겸손, 용기, 근면, 소박, 진실, 사랑받기와 용서누림 존경, 신뢰, 고결함, 명예	성령의 열매(믿음, 사랑, 소망, 충성,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보상	주목받는 것(명성)		다른 사람이 순종함, 목숨까지 헌신, 삶을 위임함

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인격의 내용

1) 전인적 인격

성경의 인간론은 인간을 몸과 영혼의 합일체로 보지 않고 인간을 몸이면서 동시에 영으로 인식한다. 성경의 인간론은 인간이 두 실체(이원론)나 세 실체(삼분설)의 합일체라고 말하지 않고 전인 안에서 다양한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영육의 통일체로서의 인간이다. 이는 인간 존재가 영성 및 이성과 정서, 행동 그리고 통찰의 측면을 동시에 지닌 통전적인 존재임을 시사한다. 통전적 인간 이해란 인간의 모든 차원들인 몸, 마음, 영혼이 한 인격 속에 기능하는 다른 역할들로 보는 것이다.³³⁾ 이중 제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영이다.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남을 입어야 한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새롭게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절대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전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성으로 중심으로 지 정의가 조화된 인격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 Howard Clinebell은 영성³⁴⁾을 중심으로 한 전인건강으로서 전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인성은 꽃처럼 살아있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유기체이다. 이 꽃은 영성을 중심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진다. 뿌리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토양과 생명계로부터 양분을 빨아올리기 위해 뻗어 나간다. 이 꽃은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으며, 꽃 위에는 사랑의 태양,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전인성의 근원이 있다. 이 태양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꽃이 계속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알맞은 때에 씨를 맺게 해준다. 따라서 통합된 전인 건강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일과 놀이를 사랑하는 것, 지구를 사랑하는 것,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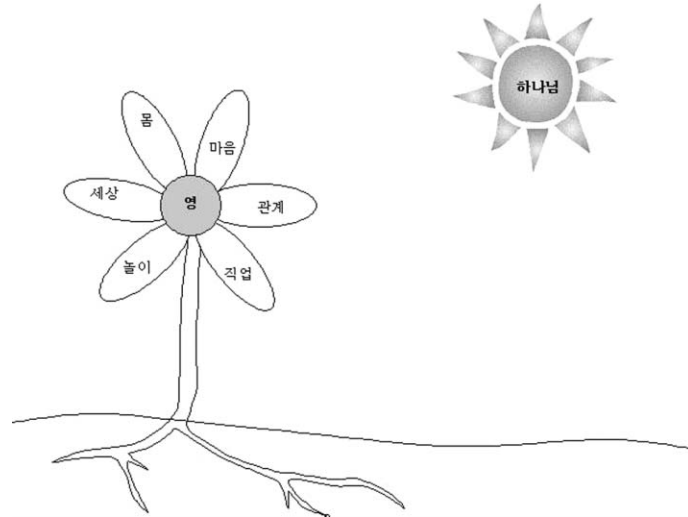


그림 1. 클라인 벨의 전인 건강 개념

기독교적 전인교육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세상을 복음화 하기 위해 인격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소망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와 입신 출세주의를 동기로 하거나,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부국강병주의를 강조하는 교육에 반대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러한 전인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혹은 지역 사회 등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

전인이란 말은 클라인 벨의 설명처럼 영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전 영역이라면, 전인교육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 교육이어야 한다. 즉 한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을 하되 평생교육적 관점으로 모색

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인 교육은 가면적 인격과 내면적 인격, 관계적 인격의 조화와 통일을 이룰 때 가능하므로 인격 교육 역시 가면적 인격의 건강과 내면적 인격의 건강, 관계적 인격의 건강을 아울러 함께 도모할 때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인교육과 인격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앞에서 연구자는 기독교 인격의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들어 설명하였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³⁶⁾이어야 한다. 이것 보다 앞서는 목표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 인격과 대비하여 정리함으로써 기독교 인격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면적 인격의 교육 목표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청지기 정신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의 근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각기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 됨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되 침범하거나 혼동됨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 그리고 상처로 인해 우리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라(엡 4:13)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또한 성경 곳곳에는 우리(삼위 하나님)가 하나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요 17:21-23; 요 17:11)고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인격적 삶이 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죄인된 우리의 본성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잔존해 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과 각종 훈련 등을 통해 인격을 다듬어 나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면적 인격의 궁극적 목표이다.

둘째, 내면적 인격의 교육목표는 자신의 죄, 허물, 실수, 악에 대해 방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인정하되, 자신의 죄를 노출함으로써 받을 손해를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자신의 악을 부인하는 고통을 거룩한 마음으로 감내하는 것이다. 이것의 근거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그 근거를 둔다. 삼위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순결하게 내어주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자는 성부를 위해, 성령은 성자를 위해 기쁘게 자신을 헌신하시며 하나 됨을 이루어 가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의지하여 우리는 죄 투성이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야고보서 5:16)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관계적 인격의 교육목표는 진실한 사랑의 나눔과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인격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그 근거를 둔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기 스스로 자존하시며 완전한 존재이시지만 온전하고 하나되시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인격적인 동등함과 평등함으로 관계를 가지신다. 또한 깊은 사랑의 친밀함으로 교제하신다.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해 우리들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어진 역할이나 권위, 능력이나 지위 고하에 따라 인격을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한 형제로 부름받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서로 재물을 나누며 '네 것' 그리고 '내 것' 이라고 하는 것 없이(행 4:32)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격 교육은 삼위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처럼 죽어간 스테반을 한 모델로 삼는 것이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천사의 얼굴이 되는 사

랑의 인격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 교육은 온갖 악과 비행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교육이 아니며, 자제력, 근면, 정직, 친절, 친밀함 등을 키우려고 애쓰는 성품교육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지, 정, 의의 통합을 바라는 그런 인격 교육도 아니다. 우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인격인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격 교육의 내용이 파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 존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의 자유와 힘은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관계이셨다.

6. 인격 교육의 적용

1) 교육을 넘어 훈련을 지향하는 것

Heraclitus는 “인격은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인격은 한 번 형성되면 변경하기 어렵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인격은 실제로 많은 경우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인격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매한 인격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격자’란 말은 매우 가치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들이 활용되고 있다. 교양교육, 종교교육, 가치교육, 정서교육, 전인교육 등은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좋은 인격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³⁷⁾

인격자를 만들기 위한 인격 교육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격 교육이라는 개념 보다는 인격 훈련이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드물게 인격교육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은 인격훈련이다. 훈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격이 형성되고 지속 되는데 강한 의지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될 수 있을 뿐이다. 덕을 강조하는 도덕교육은 인격훈련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인격훈련은 강하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약한 인격을 가진 사람, 즉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³⁸⁾

인격의 특징들로는 '정직, 신뢰, 사려, 검소, 순결, 공정, 이기심, 일관성, 결단, 성실, 정직, 단정, 용기, 비이기심, 인내력 등'³⁹⁾이 있는데 이러한 덕목들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격특징들이 종종 도덕적 덕들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러한 덕의 소유는 확실히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인격의 특징이 찬양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있는 인격의 특징들도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선한 삶에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진정으로 훌륭한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인격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

영성 및 인격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이자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 가정은 영적 및 인격 교육이 실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훌륭한 학교요 사회이다. 이렇듯 가정은 아동에 대한 일차적 영적 및 인격교육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일차적인 도덕 및 영적 교사인 셈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가장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은 매년 바뀌지만, 부모들은 아동들의 성장기에 항상 곁에 있다.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영원히 함께 하는 특별한 관계요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랑의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와 비전 그리고 인격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분명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에 대한 인격적 사회화 동인으로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정이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이

혼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결혼한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이혼하고 있다. 미국이 1960년대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이혼율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우리 한국도 엄청난 이혼율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 가운데 대략 6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아동기 대부분을 편부 혹은 편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가정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아동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많은 부모들은 역경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키우는 데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파탄에 이른 가정,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위탁되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동들의 몫인 것이다.

최근에 사회과학은 이혼 가정의 영향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임을 밝혀내기 시작하였다. 많은 아동들은 시간이 한참 경과한 다음에야 이혼한 가정의 파국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수면 효과와 같은 것이다. 부모들이 이혼한지 5년쯤 지난 후에 전과목 A를 받던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조용하고 모범적이었던 아이가 과격하고 강박처럼 변하였다. 부모들이 이혼한 지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아동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문란한 성생활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⁴¹⁾

아동들이 부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기독교적 가정의 가치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못할 때, 아동들은 동료들의 압력에 더욱 쉽게 굴복하게 된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비인격적인 삶에 쉽게 내던져져 자기 파괴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⁴²⁾

3) 인격적인 부모의 자질

인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고매한 인격은 최상의 존경을 받는다. 천재성은 항상 감탄의 대상이 되지만 천재성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는 없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격이기 때문이다

다. 천재성이 '지성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인격은 '양심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양심이다.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은 지성에 힘입어 사회에 진출하는 반면, 인격적인 사람들은 양심에 힘입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천재가 되기를 바라기 보다 먼저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부모 자신이 먼저 인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자는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는 자기의 삶에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다. 특히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실망감을 갖게 되어 부모를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인격적인 감화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긍정적인 존중을 계속 연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 마태와 삭개오같은 세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실수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는 모습에서 인격의 변화는 시작된다.

셋째, 공감적인 이해로 자녀와 대화하도록 노력한다. 공감은 자녀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성공적인 교회나 가정을 방문하면 자녀들과 공동체 멤버들이 피차에 공감적 이해로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다.

넷째, 부모나 자녀 모두가 절대적인 권위자인 하나님께 머리숙이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는 자기 반성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에 빠지는데 그것은 자기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뿌리를 둔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절대적 권위 앞에 머리 숙이므로 분명한 가치관으로 일관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자녀는 부모보다 하나님의 인격에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부모의 실수와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자녀의 눈에 부모는 거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문제를 잘 헤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자녀는 오히려 좌절감을 더 크게 느끼곤 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을 개방하면 그것이 격려가 될 수 있다. 부모가 너무 뛰어나면 자식은 모든 것을 부모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어 보일 수 있다. 너무 뛰어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보다 뛰어난 경우에는 부모의 후광이 도움이 되지만, 그저 평범한 자녀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이 그랬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도 믿음이 좋았는데 솔로몬이 너무 뛰어난 바람에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자녀에게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자세는 섬기는 부모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냈고, OECD에도 가입하여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경제 규모로는 세계에서 11위까지 성장해 중진국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광복 후 50여 년, 참으로 우리는 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 동안 얼마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지 그 단적인 예를 국민의 학력 구성비에서 보면, OECD 가맹 30개 나라 중에서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1994년 기준)으로 약 24%요, 다음이 한국(1995년 기준)으로 약 16.4%이다. 이러한 교육적 열의는 참으로 자랑스럽고 놀랍기까지 하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며 세워가는 진정한 교육인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1위, 부부 이혼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2003년 4월)이며 아시아 OECD 국가로는 1위, 남자 25%는 알코올 중독 전 단계인 알코올 의존수준이며, 매춘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150만, 한해 낙태건수는 300만, 증권으

로 집이나 재산을 날리고 빚진 사람은 한 집 건너 한 사람 정도로 심각하고, 포르노사이트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타락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의 개발이 존중되기보다는 점수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수능 성공이 이 땅에서 궁극적 성공인 것처럼 오해되는 이러한 교육적 풍토 때문에 진정한 인간을 키우는 전인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그 결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개인의 책임윤리가 실종되면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는 현상에까지 이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돈을 우상화하고 신앙의 가치는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악을 간과한 어리석음이 황금우상을 쫓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미처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회풍습도 점점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자기중심적 쾌락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⁴⁴⁾ 결국 현재의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지 않고 이 세상 교육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여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는 인격 교육인 것이다. 훌륭한 인물들은 막대한 힘을 발휘한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힘을 행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전달하고 새로운 힘을 창출하기까지 한다. 훌륭한 고결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만든다. 그들은 자발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⁴⁵⁾ 고결한 이들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은 인격을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고결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훌륭한 인격자와 함께 하는 삶은 그들의 고매한 인격의 전염으로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인격은 한 순간에 아무 대가없이 만들어 지지 않는

다. 고통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비록 그가 아들이었지만 고통으로부터 순종을 배웠다(히 5: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전혀 고통받지 않은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 피상적이며 감정적인 면에서는 미성숙하다. 인격은 용광로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가르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현재의 고통이 오히려 장래 영광의 시작(고후 14:17을 보라)임을 가르친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겸손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든다.⁴⁶⁾ 이렇게 고통의 의미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다. 신앙이나 인격도 마찬가지이다. 고통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인간의 인격은 생명력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신앙은 고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격의 성장은 고통과 비례한다. 고통이 없이는 인격의 성장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키우고 역사를 키우고 한 인간을 키우시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삶이라면 그 삶은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문도서
- 고영복. 「한국인의 성격-그 변혁을 위한 과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 김정환.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 심성보. 「도덕교육의 담론」. 서울: 학지사. 1999.
- 신득렬. “인격훈련의 개념.” 「교육철학」. Vol 16. 1998.
- 심수명.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2004.
- . 「탁월한 자녀를 만드는 특별한 교육법」. 서울: SFC. 2005.

이해명 편역. 「전인교육을 위한 학습지도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1983.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중 소요리 문답 1.
조성호.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최정훈.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1979.

•역서

Berkof, L.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뵘콕 조직신학」제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78.
Clinbell, Howard. *Well Being*. 이종현, 오성춘 역. 「전인 건강」.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6.
Collins, Gary. 원저. 「폴 투르니어의 기독교 심리학」. 서울: IVP. 1998.
Crabb, Larry. *Finding God*. 이길상 역.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서울: 나침반. 1999.
Hoekma, A. Anthony.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Hurdin, Roger. *Roots and Shoots*. 김예식 역. 「치유나무」.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Lickona, Thomas. *Education for Character*. 박장호, 추병완 역. 「인격교육론」. 서울: 백의. 1998.
Rogers, Car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한승호, 한성열 역.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Smiles, Samuel. *Character*, 정준희 역. 「인격론」 (서울: 21세기 북스, 2005).
Tourmier, Paul. *L'aventure de la Vie*. 정동섭, 박영민 역. 「모험으로 사는 인생」. 서울: IVP. 1995.
———. *The Gift of Feeling*. 홍병룡 역. 「여성, 그대의 사명은」. 서울: IVP. 1997.
Packer, James & Howard, Thomas. *Christianity: The True Humanism*. 김석현 역. 「기독교: 참된 휴머니즘」. 서울: 여수론. 1990.
Patterson, C. *Humanistic Education*, 장상호 역. 「인간주의 교육」. 서울: 박영사. 1980.

•영서

Darurl, Taylor. "In Pursuit of Character." *Christianity Today*. Vol.39 No.14. (1995, Dec.).
Glasser, W. *Schools Without Failure*. NY: Harper & Row. 1975.
London, Perry. "Character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A Paradigm

Shift for U. S. Schools.” *Phi Delta Kappan* (May 1987).

[후주]

- 1) 스티븐 코비는 인격을 이야기 할 때 2가지 차원으로 전개하였다. 하나는 성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성품은 사람의 인간됨에 필요한 일반적 요소로서 언행일치, 겸손, 용기, 근면, 진실, 소박함으로, 성격적인 요소로는 의사소통 기술, 설득력 향상 기술, 적극적인 사고 교육, 대중적 이미지 등의 기술적인 요소로 보았다. Stephen R. Covey,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박재호, 김경섭, 김원석 역,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서울: 김영사, 1994), 22-29. 이 중에서도 성격 보다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본 스티븐 코비의 주장에 연구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여기에 더하여 관계적 인격 개념을 더 추가하였고 이 요소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 2) 고영복, 「한국인의 성격-그 변혁을 위한 과제」(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186-187.
- 3) Darurl Taylor, “In Pursuit of Character,” *Christianity Today*. Vol. 39. No 14 (Dec, 1995): 29-36.
- 4) 인지적 측면은 도덕적 감지, 도덕적 가치 지식, 입장 채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도덕적 자기비판들이 포함되며, 정서적 측면은 양심, 자존심,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는 것, 자이통제, 경향들이며, 그리고 행동적 측면은 수행력, 의지, 습관들이다.
- 5) 고영복, 187.
- 6) 여기에서 말하는 성격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일관성이다. 한 사람의 내면의 태도나 외면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대체로 일관적이다. 즉, 환경이나 상황이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특성은 독특성이다. 사람들의 지문이 각기 다르듯이 인격 또한 사람마다 고유의 독특성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교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며, 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데 반해 내향적인 사람도 있다. 이렇듯이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성격의 내용과 행동뿐 아니라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의 개념을 요약하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지속되는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의 특징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호, 「경계선 성격장애」(서울: 학지사, 2000), 12-13.
- 7) 심성보, 「도덕교육의 담론」(서울: 학지사, 1999), 327.
- 8) Thomas Lickona, *Education for Character*, 박장호, 추병완 역, 「인격교육론」

- (서울: 백의, 1998), 58-59.
- 9) William Baker, *In the Image of God*, 김성웅 역, 「인간—하나님의 형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44-45.
 - 10) 심수명, 「인격치료」, (서울, 학지사, 2004), 25.
 - 11) L. Berkof,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뽕콧 조직신학」 제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78), 61.
 - 12) 심수명, 「인격치료」, 15-16.
 - 13) Larry Crabb, *Finding God*, 이길상 역,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서울: 나침반, 1999), 85.
 - 14)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그 틀에 스스로 얽매어 삶이 파괴되는 것이다. 타락한 아담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며 배척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 두려움을 덮고 피하기 위해 인간은 나뭇대로의 방어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고 있으며 나뭇대로 이 방어층을 해결하기 위해 진실한 만남을 열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지만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해 실망하며 관계가 파괴되어 오히려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된다. 또한 돈, 명예, 권력, 지위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농담, 거만한 태도, 남을 속이는 눈물, 위장된 회개와 겸손, 침묵, 각종 중독증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억압, 합리화, 투사, 승화, 반동 형성, 대치, 부정과 퇴행 등의 방어기제로 위장하기도 한다. 심수명, 「인격치료」, 28-29.
 - 15) Crabb, 197-198.
 - 16) 심수명, 「인격치료」, 30.
 - 17) 이해명 편역, 「전인교육을 위한 학습지도 방법」(서울: 교육과학사, 1983), 23.
 - 18) 최정훈, 「지각심리학」(서울: 을유문화사, 1979), 18.
 - 19) W. Glasser, *Schools Without Failure* (NY: Harper & Row, 1975), 10.
 - 20) C. Patterson, *Humanistic Education*, 장상호 역, 「인간주의 교육」(서울: 박영사, 1980), 71.
 - 21) 로저스는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를 무조건 수용하고 존경하며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진솔하게 만나는 기술이 상담자의 인격이 되어야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Carl Roger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한승호, 한성열 역, 「칼 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1998), 37, 115-19, 168-91, 318-24.
 - 22)
 - 23) 인격장애(편집성, 정신분열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경계성, 회피성, 의존성 인격 장애)의 병리성에 대한 대안으로는 심수명의 「인격치료」, 55-92를 참조바람.
 - 24) 심수명, 「탁월한 자녀를 만드는 특별한 교육법」(서울: SFC, 2005), 37-38.
 - 25) Samuel Smiles, *Character*, 정준희 역, 「인격론」(서울: 21세기북스, 2005), 126-127.
 - 26) 이 중에서도 절제는 모든 미덕의 뿌리이다. 충동과 격정에 통제력을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정신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며 인간의 욕망에 붙들려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본능적인 충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부심을 키우며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때 사회를 타락시키고 사회를 훼손시킬 범죄로 발전할 욕망이 차츰 사라지게 될 것이다.

- 27) Smiles, 152-153.
- 28) Paul Tournier, *?aventure de la vie*, 정동섭 · 박영민 역, 「모험으로 사는 인생」(서울: IVP, 1995), 113.
- 29) Paul Tournier, *The Gift of Feeling*, 홍병룡 역, 「여성, 그대의 사명은」(서울: IVP, 1997), 14. '인격 의학'이란 심리 치료사이든 정신과 의사이든 일반외과 의사이든 '내담자의 인격'과 '그의 질병에 대한 인격적인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뜻한다. 진실성을 전제로 내담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의사 자신이 인격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인격 의학의 특성이다. 따라서 내담자를 대하는 동안 그들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상투적으로 대할 위험성을 항상 주의하고 모험 정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Paul Tournier, 「모험으로 사는 인생」, 17, 51.)
- 30) Gary Collins, 「폴 투르니어의 기독교 심리학」(서울: IVP, 1998), 126.
- 31) 이렇게 인격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며 늘 그리스도께 삶을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 갈 때,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태도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 32) 이런 인격적인 관심과 온정을 베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좋은 전인적인 관계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인격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라도 자신의 결점과 약점까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어야 한다. 심수명, 「인격치료」, 96-99.
- 33) Anthony A. Hoek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9), 359, 361-362.
- 34) 클라인벨의 영성은 복음주의적 개념과는 다르다. 그는 성경이 규정한 개인과 집단의 죄를 단지 '방해받은 잠재력'과 성장에 대한 '저항'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해 때때로 꽤 낙관적인 것 같다. 그는 '타락'을 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보는 '고전적인 신학' 해석을 의심하고 인간의 죄악이 '타고 났으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버린다. Roger Hurdling, *Roots and Shoots*, 김예식 역, 「치유나무」(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373.
- 35) Howard Clinbell, *Well Being*, 이종현, 오성춘 역, 「전인 건강」(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6), 23-24.
- 36)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중 소요리 문답 1.

- 37) 신득렬, “인격훈련의 개념” 『교육철학』 Vol 16, (1998): 125.
- 38) 신득렬, 125-126.
- 39) Peters, R. S, *Psychology and Ethical Development*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4): 245, 250, 315, 400.
- 40) 신득렬, 126.
- 41) Perry London, “Character Educ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A Paradigm Shift for U. S. Schools,” *Phi Delta Kappan* (May 1987): 667-673.
- 42) Lickona, 48-51.
- 43) 김정환, 「전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7), 21.
- 44)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의 진행이 방해받는 경우를 자주 본다. 조금만 앞으로 주차하면 뒤차가 애를 먹지 않을 텐데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다. 깜박이 등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드는 차도 배려하고는 담을 쌓았다. 담배 꽂초도 마찬가지로. 꽂초 버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수구마다 꽂초가 수북하다.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편하면 그만 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어찌다가 내 집앞의 눈도 안 치우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지난 겨울 서울시는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민주화가 급속히 확산된 반면 기초질서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소홀해졌다. 이기주의의 팽배로 공동체 정신은 퇴조하고 있다. 국력에 걸맞은 도덕과 양심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때다(국민일보 2006. 4. 4).
- 45) Smiles, 424-425.
- 46) 한 목사와 그의 아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는 결함이 있어서 집중적인 치료와 수술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밖에 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 나기를 소망했고 기도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 ‘우리 딸의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딸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치료하셨다”라는 그의 말은 옳은 것이었다. 치료를 위한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응답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기쁨은 지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연단의 열매라는 것이 기독교 인생관의 핵심요소이다. 이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많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James Packer, Thomas Howard, *Christianity: The True Humanism* 김석현 역, 『기독교: 참된 휴머니즘』 (서울: 여수론, 1990), 195-196, 198-199.

【 Abstract 】

The study on the concept of personality and its
application as God's image in the view of integration
of theology and psychology

Soo-Myung Shim
(Ph.D., Kukje Theological Seminary)

Generally, the aim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one's personality at the most. As, however, technology had been grown along with material prosperity, traditional personality-based education have been turned into practical & scientific knowledge-based education. Th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education have destroyed traditional value system, therefore resulted in success-centered life seeking after material prosperity and made confuse people with crisis of their value system. In current society, schools and institutions educate people based on the pursuit of success.

Although a person seems successful socially and financially, but is very self-ish and bad, we often eyewitness him/her involved with various corruption, absurdity, and iniquity and finally hurt his/her own life. In order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recognized and re-examined personality education, diagnosed its symptom, discussed and searched for the ways to cure in different field.

The previous personality studies have been almost related with one side of ethics education. In contrast,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concept of personality in the view of theology and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object in the personality education. Also I integrate both of them into true personality concept based on the biblical value and search for 3 elements which are masked personality, internal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personality, for establishing healthy personality concept.

After considering for those elements, it would be focusing on the live practices or modeling within family and community and looking for the ways to apply into reality since personality education have little effect on only education itself and it has been better to practice in everyday circumstances. I expect to go on better research or study on the personality to be revised and enlarged further.

Key words: personality, God's image, integration, theology, psychology